

# 후반기 국회의장 누가... 불붙는 물밑 경쟁

### 정세균 의장 임기 5월말 종료...지방선거 후 선출 가능성 원내 1당이 맡는게 관례...재보선 결과 따라 바뀔 수도

20대 국회 전반기가 3개월 후에 끝남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하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는 정세균 의장의 임기 종료일(5월29일) 다음 날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는 원내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단수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는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내 1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6선인 문희상 이석현 의원, 5선의

박병석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차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득표권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7선의 이해찬 의원도 자전타전으로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문희상 의원은 중량감 및 안정감 등을, 이석현 의원은 무(無)계파 중도성향이라는 점을, 박병석 의원은 중재·타협 능력 등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의원은 친노(친 노무현) 좌장으로 8월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가 현재 5석에 불과하다는 점이 변수다. 현역의원의 6·13 지방선거 출

마 움직임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두드러져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압승한다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상존한다.

또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만큼 제 2, 3당 등이 뭉쳐서 후보를 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에서는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뚜렷하게 움직이는 주자는 없는 상태다. 5선 이상으로는 서정원(8선), 김무성(6선), 심재철·원유철·이주영·정갑윤(5선) 의원 등이 있다.

당내에서는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나 검찰 수사, 국회의장이 아닌 다른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중진 등을 빼면 심재철·정갑윤 의원 정도가 여건이 되면 의장

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출 시기도 변수다.

국회의장 교체에 따른 공백을 차단하려면 정세균 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하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문에 이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이탈로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18일 "일정대로라면 지방선거 전에 하반기 원 구성을 하는 게 맞지만, 선거 분위기에 더해 선거 이후의 석 변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판 커지는 재·보궐선거

### 현재 전국 7곳...현직 지방선거 출마파라 두자릿수 가능성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미니총선급으로 커질 전망이다.

18일 현재 재보선 지역구는 광주 서구 갑과 영암·무안·신안군, 서울의 노원구 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다 현직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결국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1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보선 최종 확정 시한(5월14일)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상당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높은 당청 지지율로 민주당 의원들의 출마 준비가 두드러진다. 한국당도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하는 의원 이 최대 3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에서 골고루 진행되는 이유 등으로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어, 각 당은 재보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여야 대립에 2월 국회 '울스톱'

### 권성동 거취 놓고 충돌 개헌·민생법안 물꼬 못 터 공수처·수사권 조정도 이견

2월 임시국회가 '속 빈 강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립이 고착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다 사법개혁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도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국회는 사실상 '울스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애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 말까지 국회 합의를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개헌 시간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역에서 만난 秋-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를 우연히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의원 상대 여론조사, 개헌 의원 총회(22일) 등을 통해 3월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연내 개헌을 내세우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간 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현재 가능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도 별다른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는 여야 이견 탓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조차 못 했다. 사개혁위는 일단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연금법, 물 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도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성한 동구청장 행보 '관심'

### 민평당-바른미래당 놓고 고심...“이번주 결정”

옛 국민당 소속 유일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인 김성한 광주 동구청장이 옛 국민당-바른미래당과 합당한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지 아니면 탈당 후 민주평화당을 구성하고 본격 선거체제를 갖겠다. 기획업무부 총괄할 단장은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오재일(65) 전 전남대 교수가 맡았다.

민평당 한 관계자는 “김 구청장과는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구청장 입당을 통해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2~3곳에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옛 국민당 탈당 후 민주평화당 입당이 중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그는 현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만약 탈당을 한다면 동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선거를 치르느냐를 놓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민주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9일 지방선거의 밑그림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선거체제를 갖겠다. 기획업무부 총괄할 단장은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오재일(65) 전 전남대 교수가 맡았다.

또 한선(49)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

수, 변원섭(57) 전 참여자치21 대표, 조병남(48) 광주시당 사무처장, 이재종(43) 광주시당 정책미디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 단장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시타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8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사로 36